

순천시, 올해 관광 해설사 108명 위촉

문화·관광·치유 등 7개 분야

3000만 관광객 시대 열 첨병

K-치유관광도시 조성 본격화

순천시가 지난 2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순천시 해설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순천시 해설사 108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2026년 관광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촉식에는 지난해 통합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문화·관광·여사·치유 등 7개 분야의 전문 해설사들이 참석해 K-치유도시 표준모델 순천의 비전과 향후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해설사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순천만국 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기획투어 현장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소통부터 전문적인 해설까지 폭넓은 관광 해설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해설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3000만 관광인구 실현을 위해 해설사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순천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워크숍,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신 관광 트렌드와 해설 기법을 반영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읍행정복지센터가 관내 취약계층 13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보성읍, 취약계층 민·관 합동 화재·안전 점검

13가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보성군이 지난달 29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지역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3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보성을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복지안전협의회, 보성읍 의용소방대, 보성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로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난방 기기 안전상태 확인 ▲화재 취약 요소 점검 ▲연기 감지기 설치 및 화재 패치 부착 ▲화재 예방 및 생활 안전수칙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가벼운 위험 요소는 즉시 조치해 2차 사고를 예방했다.

정삼룡 보성읍장은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현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네복지기동대와 관계기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

고흥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화재·전기·가스 취약 요소 개선

고흥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시설과 화재·전기·가스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고흥·녹동·과역·동강·도화 전통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개소이다. 군은 읍·면,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시설·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 인력이 참여한 총 17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표에 따른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여부와 소화전·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된 멀티탭 사용 여부, 전기 기기 접지 상태

▲가스용기 보관 실태, 가스차단기·경보기 작동 상태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시설 및 불법 적치물,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성수품을 대량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흥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상인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건강관리 서비스 '팔팔마을' 설명회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보건의료원 건강마루2층에서 초고령화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건강팔팔마을 '건강UP 행복UP!'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건강팔팔마을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증진 사업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여수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88억원 투입 114대 보급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정을 4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여수시는 총 114대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총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수소전기승용차는 대당 3500만원, 수소버스는 저상버스(3억 3700만원)와 고상버스(3억 7000만원)를 정액 지원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개인·기업·법인·단체당 1대이며, 한국형 무공해차 전용 100(K-EV100)에 기입한 민간기업 등 일부 대량수요가 있는 기업 등에서는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 해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여수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여수시로 한정한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수소전기버스는 사전 협의를 거쳐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과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여수시 콜센터(1899-2012)로 하면 된다./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